제 2장. 자연놀이 ; 즐거운 자연체험이 있는 재미난 놀이터

임양혁_ 어린이교육문화연구소 바라기닷컴

1. 필요성

진행	교육 목적	교육 내용	지식, 체험 창작활동
발단	자연공간인 숲을 알게 한다.	자연과학적 지식 관찰, 연구	머리
전개	마음의 공간인 숲을 알게 한다.	감각적인 느낌과 내적인 체험을 통해 숲의 실제와의 만남	가슴
절정	행위 공간, 문화공간인 숲을 알게 한다.	교육자의 작업이다 노력에 대한 만남	손

'아이들에게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아이들은 아직 간접경험에 익숙하지 못하기에 감각적인 경험을 우선시 하며, 신체적이고 실존적인 의존을 받게 되는 부모에게 맹목적인 신뢰를 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에게 준 선물로 자연을 기억하고 놀이를 통해 세상을 배워갑니다. 어린 시절 아이들이 보는 자연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만들어 집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는 많은 기대를 합니다. 때문에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만 하지요. 그러나 아이 스스로 배우려 하는 동기가 없다면 아이도 부모도 모두 불행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왜 배워야 하는지' 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즐거움에서 시작됩니다. 즐거움은 호기심을 유발하고, 관심이 생기도록 만들어 주며, 스스로 학습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게 해줍니다.
숲에는 매우 다양하고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숲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뛰어 놀면서 배움의 호기심을 전달해준다면 그처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자연에서 놀면서 배우는 것이야 말로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린 시절 접하는 자연은 그 어떤 시기보다도 생태적 감수성, 자연에 대한 친밀감 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은 자연과 직접적인 관계맺음을 통해 감각적으로 자연을 받아들이고 지각하며 이러한 경험은 이후 긍정적인 환경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자연체험활동은 아이들의 균형 있는 몸의 발전, 영혼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돕게 되며,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뛰놀고 체험하는 그 자체로 훌륭한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놀잇감에 길들여진 우리 아이들이 숲에서 무엇에 흥미를 느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도시에서 즐기는 놀잇감만큼 자극적이지는 못하지만 숲에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을 자극하는 자연물이 가득 차 있으므로 눈과 코와 귀로 숲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원에서는 함께하는 놀이에서는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과 열매를 주제로 오감을 통해 배우는 놀이를 준비했습니다.
또, 자연의 경이로움에 대해 머리로 생각하고 글로 기억하는 자연이 아닌 오감을 통해 느낌으로 기억하는 방식으로 풍성한 놀이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가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한 숲체험교육은 다른 말로 자연놀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에게 자연을 좀 더 쉽고 친근감 있게 알려주는 방식이고요.

인디안 탄자마니(Tatanga Mani)는 “나는 너희들과 같이 최고의 대학교 뿐 아니라, 보통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조차 가본 적 없다. 그러나 가장 훌륭한 학교는 바로 학교 밖 자연이라고 생각한다.” 고 백인들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스승은 이론과 간접적 경험을 주입하는 학교가 아닌 자연 자체의 느낌이었습니다.

언제나 시작은 작지만 충실합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집을 나서기 전에, 거창하지는 않지만 그런 작은 움직임들이 있어 다음을 행복하게 합니다. 큰 나무의 시작도 보이지는 않지만 땅속에서 충실했던 씨앗들의 움직임이 있어 건강한 삶을 만들 듯 여러분들이 다음을 준비하는 작은 시간은 그만큼 소중한 이유입니다.

이제 자연과 세상과 접하기 시작한 아이들의 작은 움직임. 그것이 시작될 숲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뛰어 놀면서 배움의 호기심을 전달해준다면 그처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자연에서 놀면서 배우는 것이야 말로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아이와 함께 자연을 탐험하는 것은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정해 놓은 세상의 기준 안에 가려 보이지 않는 생명의 작은 움직임들을 아이들과 함께 찾아보세요.

2. 자연체험학습이란?

‘경험’ 과 체험 ‘은 비슷한 뜻으로 혼용되고 있으나 한국어대사전에서는 경험의 의미는 첫째 직접 느껴 보거나 겪어 보거나 함, 둘째 직접 겪음으로써 지식과 기능 따위를 얻음, 또는 그 지식이나 기능을 말하는 것이고, 체험은 첫째 몸소 겪은 경험, 둘째 특정한 인격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심적 과정으로 정의합니다. 즉,’ 경험 ‘과 ’ 체험 ‘은 모두 직접 겪은 것이라는 뜻에서 혼용할 수 있으나 ’ 체험 ‘이 직접 겪어본 것을 강조하는 느낌을 줍니다.
다시 말해 경험이란 말보다 교육적 요소가 강한 체험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는 바로 말 그대로 행위를 통해 교육적 효과를 얻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준비의 원칙

‘철이 든다’ 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일 것입니다. 제철에 나는 곡식과 과일 그리고 채소를 먹어가면서 어느 시기에 무엇이 어느 장소에 어떠한 것이 있다는 것. 그래서 자연의 이치와 순리를 통하여 앞으로의 일을 미리 예측할 수 있을 때 즈음이 되어서야 철이 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연체험학습의 준비하는 과정 역시 철이 드는 과정과 같을 것입니다.
목표치만 설정하고 과정을 무시하여 준비되는 학습은 아이들에게 일상을 벗어남을 통해 느끼는 자유와 즐거움은 줄 수 있지만 일상에서 습관이나 생활의 변화를 주거나 과정의 소중함을 느끼기에는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자연체험학습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하는 점은 과정의 소중함을 전달하는 것 즉 학습의 과정에서 느끼는 소소한 부분까지 체크해야하는 것입니다.

4. 진행원칙

1) 여유 – 일정에 쫓기기 보다는 모두가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2) 삶속의 지혜 – 잊혀져가고 있는 우리의 것들을 소중이 생각하며 그 속의 삶의 지혜를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3) 자연학습 – 제철의 흐름에 따라 생명의 움직임과 그 속의 문화를 찾아야 합니다.

5. 현장 프로그램 접목방식

회색빛으로 가득한 도시는 점점 더 녹색의 공간을 원하고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자연과 함께 할 시간을 원하며 아이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유해 문화 속에 노출된 체 살아가는 사람들... 도심 속에서 컴퓨터와 TV를 통해 자유를 느끼며 사는 아이들. 자연의 느림보다는 도시의 빠름의 문화가 익숙해져 버린 그렇지만, 이제 겨우 날기 시작하여 세상을 자신들의 언어로 이해하고, 자신들의 눈으로 보는 아이들과 그런 아이들이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에게 오랜 시간을 더디게 자신을 준비하며 다가온 숲은 좋은 놀이터이자 교실이 될 수 있습니다.

6. 체험교육 기획

체험교육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획 단계이다. 기획은 전체적인 흐름에서부터 작은 활동들까지 하나의 영화 대본을 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획 및 준비가 잘 되어야 현장에서 교육생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7. 기획 회의

기획 회의는 주강사와 보조강사 및 진행팀 모두가 참가해야 한다. 기획회의는 주강사가 진행하며, 현장답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교육목적에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를 고려하여 주제에 접근하는 과정을 정리해야 한다.

① 체험교육의 주제를 선정하라!

기획 단계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 져야 할 것은 체험교육의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다. 가장 큰 주제를 잡아야 그 안에서 세세한 단위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러한 단위 프로그램들이 커다란 틀 안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 주제를 선정하는 것은 체험교육의 방향을 선정하는 것과 같다. 주제 선정에 있어서 특별한 정답은 없다. 단지 체험교육의 주제를 구상할 때 가장 주의할 것은 그 내용들이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것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자는 너무나 많은 것을 전달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그 현장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은 체험교육에 있어서 무의미 하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많은 것을 전달하려다가 더 큰 것을 상실할 수도 있다. 때로는 작은 것이 더 클 수 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 해야 한다. 주제는 그 당시 계절이나 교육 시간, 혹은 교육장의 자연 환경, 그리고 대상들이 기존 교육에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선정하면 된다.

② 전체적인 체험교육의 흐름을 설정하라!

체험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지름길은 교육 의뢰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교육의 성공여부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자 본인이 만족할만한 교육을 했다고 하더라도 교육생이나 의뢰자가 만족을 하지 못한다면 그 교육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자와 교육생 그리고 교육 의뢰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의뢰자와의 의사소통이 정화하

게 이루어 져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체험교육이 학교 교과 내용을 보충한다는 식의 접근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체험교육은 기존의 교육을 보충하는 과외가 아닌 학과 내용을 이해하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교육생들이 과외수업이라고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추가적인 스트레스 현상이 될 수 있다. 체험교육의 흐름을 설정한다는 것은 커다란 줄거리를 쓰는 일과 같다. 주제를 선정했다면 그 주제에 맞추어 시간 순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 인지 커다란 흐름을 잡아가야한다. 여기에는 소설기법 가운데 하나인 발단-전개-절정-결말의 4단계 흐름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어느 부분에 들어갈 것인지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단위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전체적인 흐름이 완성되었다면, 답사 기록이나 스케치, 사진 등을 바탕으로 어느 지점에서 어떠한 주제로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단위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간다. 기획 회의에서 논의되고 개발된 프로그램들은 아래의 틀에 맞추어 정리한다.

단위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전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아이디어 회의를 한다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탄생할 수 있다. 아이디어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8. 강사

1) 체험교육자는 누구인가?

체험교육은 교육생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지만, 가장 선두에서 교육을 이끌어 가는 사람은 바로 교육자(강사)이다. 따라서 강사는 교육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교육생을 직접 대하고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바탕이 되는 교육적 철학은 물론이고, 교육의 목표와 각 단위 프로그램들의 연관성을 간과하지 않고 이끌어 나가야한다. 따라서 체험교육자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정리 단계까지 아래의 사항들을 염두에 두어두고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① 교육 대상 파악 : 교육생들의 주변 환경에서부터 그들이 원하는 것

② 교육 현장 파악 : 현장의 자세한 사항에서부터 교육 당일 기후 파악까지

③ 교육의 목적 : 왜 체험교육을 하는가?

④ 교육의 방법 :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2) 체험교육자의 구성

강사진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모집할 수 있다. 체험교육은 한 그룹이 10명에서 15명 사이가 적당하며 각 그룹 별로 주강사 1명과 보조강사 및 진행자 1명이 함께 팀을 이루는 것이 적당하다. 만약 교육을 주도하는 주강사와 보조 강사로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강사가 중심이 되어 진행해야 하겠지만, 주강사 혼자서 20명 이상의 교육생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적 효과를 얻기가 어려우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① 주강사

주강사는 현장 답사부터 교육진행, 정리까지 전체적으로 교육을 책임지고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주강사는 최소 교육 일주일전에는 현장답사를 다녀와야 하며, 프로그램 기획회의를 주재하고, 교구 및 교재 준비사항들을 점검하며, 참관 및 보조진행자들과 수시로 연락을 통하여 교육의 전반사항들을 확인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이 끝난 후 평가 회의를 주재하고 평가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보조강사 및 진행자

보조강사 및 진행자는 답사에서부터 교육진행, 정리까지 주강사와 함께 교육을 진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 역시 주강사와 마찬가지로 최소 교육 일주일 전에는 현장 답사를 다녀와야 하고, 프로그램 기획회의에 참가해야하며, 구체적으로 교구 및 교재를 준비하여 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하는 등 세세한 업무를 맡는다. 교육 당일에는 주강사를 보조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내용을 기록하거나 촬영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이 끝나면 교구 및 교재를 정리하고, 평가회의에 참가해야하며 기록지를 작성하여 다음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9. 현장 답사

1) 답사는 왜 하는가?

체험교육은 현장 답사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그것은 계획 없이 진행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장은 계절과 시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 곳이고, 교육 대상과 그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진행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잘 알고 있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답사는 필수적이다. 현장 답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현장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밑그림이 될 뿐 아니라,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 또한 참가자의 안전과 현장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도 교육자는 교육현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완벽한 그림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현장 답사의 진행과정

① 현장 답사 전의 작업

- 대상을 파악한다.

: 신청 접수를 통하여 기록된 내용으로 대상을 파악한다.

교육생 연령, 교육생 수, 기존 교육 참여빈도, 교육의뢰 시간, 교육목적 등.

- 교육현장을 선정한다.

: 가능한 교육 의뢰 측에서 희망하는 지역을 선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특별히 희망하는 현장이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참가자들의 거주지에서 가능한 한 가까운 곳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 교육목적에 적합한 내용들을 1차적으로 정리한다.

: 교육현장의 자연성, 역사 및 문화적 특성 등의 내용을 우선 자료를 통해 정리한다.
무엇을 특히 강조할 것인가를 대상의 수준과 교육목적에 맞추어 구상한다.

② 현장 답사

답사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은 기록할 수 있는 도구와 답사 장소에 대한 지도 및 정보이며, 식물도감 정도는 지참하는 것이 좋다. 답사 전반적인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장을 스케치하거나 촬영 할 수 있으면 더욱 도움이 된다.

현장을 답사 할 때에는 아래 사항들을 염두 해 두어야 한다.

- 교육 현장은 어떤 곳인가?
- 참가자들이 찾아오기에 문제점이 없을까?
- 교육 현장만이 지니고 있는 문화, 역사, 자연환경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 교육생들에게 교육현장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 전체적인 임상과 지형은 어떤가?
- 세부적으로 어떠한 수목과 초본류, 그리고 동물들이 살고 있는가?
- 현장만의 특수성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가?
(자연환경, 역사, 문화 모두를 포함하며, 긍정적, 부정적 사실들 모두를 의미함)
- 체험교육이 실시되는 보행로의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되는가?
- 주변 인파들이 많아 교육에 지장을 받지는 않는가?

교육자는 교육장소를 따라 가면서 육안으로 관찰되는 수종들을 파악하고, 작은 들풀들을 관찰하면서 현장점검을 해나간다. 전체적으로 유난히 많이 나타나는 수종과 들풀 그리고 어느 특정한 장소에 많이 나타나는 수종과 들풀들을 정리해낼 수 있다. 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생각해본다. 그것은 자연적인 환경조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며, 또는 인위적으로 조성이 되어진 까닭이기도하다. 또한 지형에 따라 식생들이 분명하게 구분지울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습한 곳과 건조한곳, 북사면과 남사면에 따라 매우 다른 식생을 나타낸다. 계속해서 조사를 하다보면 해발고에 따라 조금씩 식생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조사를 하다보면 기본적인 모암이 무엇이냐에 따라 식물상이 달라질 수 도 있게 된다. 기록은 필수적이다.

다음 페이지의 현장 답사 기록지를 작성하며 세세한 부분까지 답사를 하는 것이 좋다.

③ 현장 답사 후의 작업

현장 답사가 이루어지면 답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종합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러 명이 함께 답사를 했을 경우 각각의 기록들은 교육을 기획하는 단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료가 되므로 빠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뿐만 아니라 회의를 통하여 기록들을 공유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현장 답사 후에는 교육장소에 대하여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체험교육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다른 교육에 비하여 현장상황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참가인원과 비교해 보았을 때 체험교육을 실행 할 수 있는 장소로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만약 교육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장소가 적합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획을 했다고 해도 많은 부분 참가자의 참여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불가능한 장소로 판단될 경우 교육의뢰자와 장소를 조정하는 것까지 생각해야 한다.